

청년허브 열린강연 정희진 강연 속기

2016년 6월 9일 저녁 7시 창문카페

정: 정희진 이라고 한다. 내가 자기소개를 무지하게 싫어한다. 이 중에서 트위터를 하시는 분? 생각보다 적은 것 같다. 트위터 에서의 저의 평판은 아는가? 엄기호 사태를 아시는 분? 아주 없진 않은 것 같다.. 소통이 안 되는 사회니 각자 살아야지 하는. 뭐 소식을 공유하고 하지 말고.. 제 주장은 페미니스트는 페미니스트끼리, 레즈는 레즈끼리 살자고, 정체성의 정치를 하는 사람들끼리 살자고 했더니 그러면 진짜 더 싸움된다고 한다. 친구가.

제가 부탁 한 가지 드려도 될까요? 최근에 트위터 공포증이 생겼다. 너무 무섭다. 말과 글의 검열이 이루어 말할 수가 없고, 내가 보기와 달리 소심하고 겁이 많다. 비판 받는 건 좋은데 최소한 팩트가 맞거나, 말이 되면 환영이다. 이렇지가 않은 경우가 많아서 억울한 심정이 든다. 여기서 바로 이순간에 6월 9일 7시부터 9시까지 서울의 한 공간에 모였다. 여러분과 저의 역사적 공간이다. 역사는 순환되기도 반복되기도 전진 되지도 않는다고 생각한다. 역사는 한번의 에피소드 이다. 역사에 남으려는 사람들 때문에 미친다. 백인들의 역사는 역사인데 여성이나 흑인의 역사는 사건으로 묻힌다. 모든 사람들의 역사는 에피소드다. 어떤 식의 통사처럼 간다는 건 거짓말. 우리가 아는 역사는 승자들의 역사이기 때문에 역사의 승리를 잘 못 생각하기 쉽다. 이거 되게 중요한 이야기다.

저는 국정교과서 찬성이다. 정권 바뀔 때 마다 교과서를 어떻게 바꿔 쓰나. 교과서 쓰는 게 쉽지 않다. 국정교과서를 제가 쓰겠다는 거다. 저는 노예노동과 여성노동에 대해 쓸 거다. 태종태세문단세 하면서 공부 하는 건 다르다. 이렇게 하면 좌파우파가 없다. 정권이 바뀔 때 마다 이 논쟁을 하는 건 너무 소모적이다. 역사가 이어 지는 게 아니라 에피소드고 역사란 없다는 벤자민의 이야기다.

제가 여기서 어떤 맥락의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서서는 맞았는데 밖에서 옮기면 이상한 이야기가 되기 쉽다. 이 강의에 대해서 안에서 얘기하는 게 좋지만 트위터로 옮겨지면. 빨래하는 페미니즘의 서평을 썼는데 ‘나는 페미니스트가 아니다. 다만 좋은 페미니스트가 되려고 사투하는 사람. 페미니스트가 되기는 얼마나 힘든 과정인가’ 이라는 얘기를 썼다. 트위터에 조리돌림을 당했다. ‘정희진이 페미니스트가 아니라는 선언을 했다’ 라는 등. 별의 별일이 다 있었다.

어쨌든 우리는 딱 한 번 만나고 헤어지는 거다. 전후를 만들려 할 때 이별의 아픔이 오고, 괴로워 지

는거지.

오늘 주제가 참 애매하다면 애매 하달까. 참가자들 고민이 많은 것 같다. 하는 약간의 좌절, 약간의 우울, 이 세상 어떻게 사나? 이거인 것 같다. 뭔가 심란하고 괴롭기는 하지만 어떤 액션을 해야 할지 모르겠고, 괴롭기도 하고. 강남역과 구의역 사건은 성격이 다르다. 강남역 사건은 제 주변의 일이기 때문에 놀라지 않았다. 여자들은 매일 맞고 죽는데. 사람들이 놀라는 데에 놀랐다. 그렇게 우리사회에 인식을 잘 못하고 있었다. 이게 충격 이었다는 거면. 인식을 하는 건 좋은데, 매일 있는 일로 왜 저러는 거야? 라고....

고3이 졸업을 하기도 전에 취직걱정을 한다. 맘 고생을 많이 했다고 한다. 제가 아는 고3들은 부잣집 망나니들이 많다. 막 공부 하는 걸로 유세 부리고. 내 친구들 자녀들을 생각해볼 때 너무 다르다. 무슨 고3때부터 취업 안 된다고 걱정을 하는지. 그 부모님이 철들라고 교육 시킨 게 한이 된다는 말이 책임감 있는 아이로 키운 게 한이 된다는 말에 눈물이 쏟아졌다. 여러분들도 좌절, 우울, 이 세상 어떻게 사나? 고민 가진 게 맞는가?

강남역은 너무나 오래된 젠더 문제 이고, 구의역 사건은 계급의 문제이다.

희생이나 추모의 윤리에 대해 같은 태도를 갖지만 사건의 성격은 다르다. 제가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타자, 계토, 분리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하고 싶다.

간단히 말하면, 환경영화제에 제 칼럼의 내용을 쓰게 되었다. 김기덕 감독이 만든 후쿠시마 관련 영화였다. 후쿠시마 에서 지진이 났고 원자력발전소 폭발한 문젠데 그 지역의 부부가 임신을 해서 기형아에 대한 공포가 주 내용이다. 낙태하자, 말자의 싸움이 전부다. 거기에 작은 장면이 나온다. 그 장면을 기억하는 사람이 없을 만큼 스쳐지나 갔는데, 남편과 아내가 임신을 했다. 근데 기형아일까? 전전긍긍한다. 지역의 채소도 안 먹고 하고 아베는 아무일 없다고 한 상황에 후쿠시마에 가서 부인을 안심 시키려고 갔다. 그런데 어떤 남자가 돼지를 도축한 후 꼬치구이를 해서 동경시내의 신주쿠, 긴자 거리에 있는 음식점 주인들 에게 판 거다. 남자는 깜짝 놀란다. 미친놈 아니냐, 신고하겠다 등의 말다툼을 벌이는데 익명의 남자가 너무나 태연하게 왜, 전기는 도쿄사람이 쓰는데 피해는 후쿠시마 사람들이 입어야 하나. 에너지소비 자체와 불평등성. 전기는 서울이 쓰는데 송전탑은 밀양. 안보는 가장 관찮은 강정에.. 모든 사람들이 오염된 사람들이 먹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한다. 알면 안 먹을 꺼라 모르게 먹인다는 거다. 방사능 오염된 고기를 동경에 공수 하겠다는 거다. 다른 건 기억이 안 나고 그 장면이 굉장히 인상적이었다. 역시 김기덕이다 하는 생각이 들었다.

평범하게 보면 다같이 망하자는 거다. 언뜻 보기에.

나는 군대 징병제가 나쁘다고 본다. 몇 지역만이라도 몰아서 하자. 이런 아이디어가 공공선 이라는 이름으로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의 논리(공리주의)로 사회대안으로 제시될 수 있다. 남성주의에서 가장 유사한 게 성매매 문제다. 공창제. 모든 여자가 할 수 없으니 몇 명만 특정지역에서. 1970년대 극페미니스트 들은 나 다 창녀야. 창녀와 페미니스트 레즈비언이 연대한 적이 있었다. 남성들이 연대하니 무서워하기 시작했다. 강간 할 테면 해봐! 벗어 봐! 라고 하면 다 도망간다. 신도림 역에서 바바리맨을 도망가게 하는 방법. 그가 바지를 벗으려 할 때 바지를 벗겨 버린다.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다같이 망하자는 불가능하다. 침몰하는 배에서 누가 먼저 탈출할 것인가에서 노인, 아동을 먼저 탈출시킨다. 제가 이야기 하고자 하는 것은 누구는 포함시키고 누구는 배제하는 사고방식에 대해 생각하자는 이야기였다.

저의 주장은 피해를 공유하자고 해서 진도앞바다에 빠지자는 이야기는 아니다. 다른 식으로 이야기하면 생각의 패러다임의 전환을 이야기하고 싶다. 사고방식의 전환. 우리가 고정관념을 갖고 있으면 남의 말이 잘 못 들리기도 한다. 글자를 오식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

여기 계신 분들은 선한 자가 되고 싶어하는 분들인 것 같다. 선하고 강한 사람이 지도자가 되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일은 없다. 쉽게 얘기해서, 선하고 강한 자가 대통령이 됐으면 좋겠다. 하지만 이거 불가능 하다. 선한 자가 아니라 약한 자가 되어라. 유명한 말인데, 선한 자가 되는 게 쉬운 일이 아니다. 올바른 사람이 되려면 자원이 있어야 한다. 약자의 악이 있다. 강자의 악과 약자의 악이 합쳐져서 이 세상이 만들어졌다. 가정폭력 피해여성을 도와줬는데 그 피해여성이 남편 편을 들어서 여성단체 근무자가 인신매매범 으로 오해 받는 경우도 있다. 세월호 사건의 가족을 잃은 애들을 보며 세월호가 상기 된다면 왕따를 당하고 가족들이 비난을 받고 있다. 너 때문에 우울하다, 재수없다, 기분 나쁘다, 꺼져라 라고 한다는 거다. 사람들이 무섭다. 약자를 싫어한다. 루저에 대한 굉장한 억압이다. 트럼프와 힐러리의 역량을 보면 비교가 안 된다. 트럼프가 인기가 있는 건 워킹 클래스의 비주류 남성들의 지지를 받고 있다. 힐러리는 정의가 있지만 주류이고.

엘리트고, 똑똑하고 정의로운 건 힐러리 이고, 무식하고 강패고 사람들이 상대 안 하려는 사람들에게 민중들은 트럼프와 동일시하고 있다. 워킹 클래스 계급적 타자와 성별의 타자인 연대하자는 건 안 되고 악의적으로 그린 게 김기덕의 초기작이다. 저도 페미니즘으로 이야기할 때 고학력 이고, 지식인 남성들이 편하다. 워킹 클래스 남자와과는 대면 기회도 없지만, 만나면 복잡하다는 얘기다. 선하다는 의

미는 피 억압자들의 하이 문화. 이것이 조폭이나 강패와 선이 그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다.

-정의로운 자가 되지 말고 약자가 되어라.

약함에 대한 이해능력과 공감능력. 여성이나 약자들은 대부분 교활하고 거짓말을 잘한다. 여성, 마약중독자, 아픈 사람들은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고 교활하고 이중 메시지를 보낸다. 이들이 본질적으로 그런 것이 아니라 살아남기 위한 전략이다. 착한 여자와 착한 여자 콤플렉스는 다르다. 나는 착하고 싶지 않아. 하지만 착한 여자 소리를 듣고 싶어. 싸가지 없고지만 착하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싶다는 거다. 착한 남자 콤플렉스는 덜 받는데 착한 여자가 되어 한다는 사회적 강박이 있고 특정 성에만 강요되는 것이 착한 여자 콤플렉스다.

원래 나는 자기물두적인 인간인데, 여자로 태어나니 이중적으로 행동하게 된다. 내것도 챙기면서 착하게도 보여야 하니 정신이 없거나 거짓말을 많이 하거나.

예를 들면 치즈 케이크, 달콤한 음식 중독이 있는데 주변에서 걱정을 해서 먹어놓고는 안 먹었다고 한다. 당장의 모욕을 면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한다. 어려운 상황에 있다는 것을 드러내는 게 부담이 있다. 이중적 의미가 있다. 나의 힘든 상태를 드러내서 위로나 격려를 받으면 좋은 거다. 위로까지는 바라지도 않고, 이해나 수용을 받으면 좋은데 대부분은 낙인을 찍는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사이에서 주변사람에게 문제를 호소할까 말까 망설인다. 예를 들면 내가 지병이 있어서 사람들에게 취약하다고 알리고 싶거나 취직이 안될 것 같아. 동성애자든 지병이든 다 똑같다. 강한 척을 해야 한다. 사회적으로 그걸 받아주는 문화면 그걸 드러내고 사는데, 이해 받기 보다 제가 저렇구나 라는 낙인이 찍힌다. 같이 공부하는 친구가 연변출신의 조선동포인지 몰랐다. 너무 젊은 세대 이기도 하고 말투도 아무렇지도 않았고. 안 순간 모든 게 다 그 '정체성' 으로 연결되더라. 그 낙인 때문에 사람들이 거짓으로 살아. 그러니 힘들다. 나는 아픈데 아프지 않은척하기 얼마나 힘든가? 기침도 참기 힘든데. 모든 사람이 약점이 있고 약한 부분이 있다. 그것이 그 사람을 배제하거나 미워하거나 성격을 규정짓는 무엇이 돼서는 안 된다. 내가 생각하는 윤리의 전환점이다. 나의 온전한 모습이지 딱 자를 수 없다.

책을 쓰고 있는데 인생의 8할은 고통과 분노다. 이게 없었으면 글을 못 썼을 거다. 글을 잘 쓰면 말이 되지만 고통과 분노 때문에 루저이면 안 된다. 사회적으로 고통에 처해있거나 피해자가 되거나 자기 약점이 있거나.

지금은 우울한 게 정상이다. 우울한 사람이 정상이다. 우울하다는 것은 붕 떠있거나 조증 상태의 뭔가를 하려는 건 아니다. 인생이 나이대마다 문제가 있고 힘든 부분이 있다. 나이 드는 게 건강상의 문제나, 힘든 부분이 있다. 젊은 시절로 돌아가라면 미칠 것 같다. 딸 때문에 죽지를 못하겠다. 딸이 살아가는 세상의 구조가 아니다. 나의 딸 이야기 알고 계신 분? 강의 때마다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나의 집안은 학력이 굉장히 높은 편이다. 근데 배우면 뭐해, 라는 생각이 들어서 딸을 한국에서 가장 작다는 서촌 초등학교를 마치고 비인가 대안학교를 보내서 검정고시를 봐야 했다. 수업을 안 들어가도 되는 생활을 12년동안 살았다. 농사지어 자기 먹기, 무전여행을 했다. 우리나라에서 고졸검정고시 출신이 뭘 할 수 있겠나. 패스트푸드점이나 편의점은 너무 어려 보여서 다 떨어졌다. 전단지, 피씨방 야간을 했다. 자기가 전단지를 돌릴 때 고통 받아서, 한 달 동안 남이 주는 전단지를 모두 받아왔다. 아무 할 일도 없는데 돌아다니며 전단지 돌리는 사람들에게 받아줬다. 자기가 아르바이트를 할 때 너무 고통 받았던 거다. 자기 경험을 생각하면 얼마나 힘들까 싶어 그랬던 거다. 일 년 동안 밑바닥 생활을 하더니, '엄마, 나 공부하게 도와줘' 라고 했다.

공부 시켜달라고 해서 2달동안 영어를 주입했다. 필리핀에 있는 국제NGO로 보냈다. 그 다음이 문제였다. 페어트레블 이라고 원주민들과 청소를 하고 있다. 영어도 과부하 인데 중국어도 배워야 한다고 한다. 대한민국 에서 자기가 밑바닥인데 내가 왜 4개 국어를 해야 돼? 라고 말한다. 서울에 오면 18살이고 이름도 모르는 대안학교 에서 유기농 농사짓고 여행 다니다가 동아시아 3개 국어를 요구 받는 상황에 살고 싶지가 않다는데, 전단지도 싫다고 한다. 그냥 뻘치고 있는 거다. 그래서 내가 '아라야, 그게 바로 글로벌 자본주의야. 끊어!'라고 했다. 상황이 이렇다.

내 친구들 중에는 LGBT 친구들도 많지만, 청담동 머느리 유형도 많다. 우리 선진국을 따라 잡아야 한다는 강박관념이 강하다. 아직 Nation build의 업무가 남아 있다. 사회를 건강하게 한다는 아이디어는 없고, 국가를 발전시켜야 된다는 말만 있다. 그래서 좌파, 우파가 다를 것이 없다는 얘기다. 정의당과 새누리당의 정당정책 60%가 똑같다. 아직 탈 식민이 덜 된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환경운동, 여성운동이 가장 낫다고 말한다. 민주화나 산업화의 세력이 노동을 신성시한다. 아직까지도 새벽종이 울렸네고, 경쟁이다. 민주화 노동을 신중시해서 성매매 하는 것도 노동이라고 이야기한다. 성노동 이라고 하는 데는 신성시하는 것. 발전주의의 노동운동의 피해집단이 환경운동, 여성운동이다. 발전주의는 여성의 성 역할 노동으로 부여해서 우리나라가 군사비지출이 높은데도 살 수 있다 여성들의 노동착취, 이중노동, 희생이라는 이름으로 착취되는 가사노동, 남녀 월급 차등지급 등으

로. 진보좌파들이 젤 싫어하는 운동이 여성과 환경이다.

우리나라는 학문의 다양성과 사고의 다양성이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새롭게 문제제기를 하는 곳이 있어야 한다. 산업혁명에서 우리는 일본을 통해서 서구를 받아들이며, 일본으로부터 가치를 전달 받았다. 전지구적 자본주의로 한국사회가 편입될 수밖에 없는 시기에 DJ이나 노무현 같은 이질적인 사람이 당선인 거다. 이 두 정권 사이에서 신자유주의 드라이브가 걸렸다. 내가 보기엔 잃어버린 10년이 아닌, 애매한 10년 이었다. 우리가 기대한 건 전지적 자본주의여도 누군가가 막아주고, 국가가 도매상이라면 미국에서 소고기를 좋은 걸 갖고 오길 바랬는데 고철 무기를 사며 3년 이상 된 고기를 받기로 한 거다. 그래서 6개월 동안 촛불시위가 일어난 것 아닌가?

우리가 우울한 이유는, 국가에 대한 기대가 없다. 상징적인 것이 세월호 이다. 쿠바의 영토인데 미국이 쓰고 있다. 영토와 주권과 국민과 국가간의 경계, 연결고리가 깨졌다. 도쿄에서 잘 사는 사람들, 청담동 사람들, 도시국가연합 이라는 싸썬 이라는 사회학자의 이야기가 있다. 그냥 돈만으로 부자들의 도시국가연합이 생겨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 전통적인 국가의 역할을 기대하기 어렵다. 유아인 씨가 하는 말이, 지금 사람들은 주어진 권리를 두려워한다고 이야기한다. 권리를 두려워한다. 국가는 재난 컨트롤 타워가 아니다. 그럼 재난 컨트롤 타워는 누구인가? 공적인 보호자도 없고, 사적인 보호자도 없다. 아무도 나의 안전이나 목숨에 관심이 없거나, 이런 맥락에서 여성의 폭발들이 있으니 남성혐오라는 이야기가 나온다. 백인 혐오도 아니고, 이성애자 혐오도 아니고. 여성은 길거리 생활을 할 수 없다. 집에서, 길에서, 보호소에서. 공적 국민으로써도 보호를 못 받고, 여성으로써도 보호를 못 받는다.

나는 옛날부터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액션 어드벤처의 꿈이 있었다. 여성 노숙자는 노숙을 할 수도 없다. 집 밖에 나가는 순간 강간-임신이다. 내가 제일 싫어하는 게 남자들 어드벤처 영화다. 여성의 신체구조가 임신 할 수 있기 때문에 노숙을 할 수가 없다. 나는 28번 낙태한 여성 상담도 했었다. 고시촌에서 살면 총무가 강간하려 한다. 집에 있으면 아버지가 강간 하려고 한다. 이런 식으로 여성은 어디서도 자유롭기 힘들다.

국가가 역할을 못하고 산업자본주의, 사적 폭력의 만연. 폭력, 살인을 서비스하는 자본주의가 등장했다. 재벌에서 가난한 남성 청소년을 훈련시켜서 폭력배가 되고 여자는 성매매를 하게 된다. 폭력을 제공하는 코퍼레이션 회사가 많이 있다. 기업이나 건설회사에는 다 있다.

지금은 학교와 군대가 훈련기관이 아니다. 구조적으로 노동자가 필요한 구조가 아니다. 전산화가 하나

되면 몇 백 개의 일자리가 없어진다. 일자리가 없고 결혼을 못하고 출산이 떨어지고 악화가 악화를 낳는다. 식량이 부족할 때 인구조절을 한다. 전쟁을 벌여 남자를 줄인다. 나는 사는 게 두렵지, 죽는 게 두렵지 않다.

실업과 폭력이 만연하니 우울한 게 당연하다. 어떤 애들은 별로 안 우울하다. 약간의 조증 상태로 열심히 살면서, 약간 뻘뻘한 사람이 대세다. 이런 상태의 사람 중 비리를 저지르는 사람을 많이 알고 있는데, 그래도 끄떡없다. 이 사람들의 지배적인 캐릭터가 되어 버렸다. 기본적으로 어떤 식의 정의, 윤리가 무너진 거다. 윤리가 무너지면 사람이 우울할 수밖에 없다. 미술에서 표절을 하면 패러디인데, 인문 사회, 과학 에서 표절을 하면 굉장히 의미가 다르다. 제 주변에 표절로 먹고 사는 교수가 있다. 성폭행 가해자를 옹호하는 나쁜 짓 하는 여자 페미니스트가 있다. 하지만 그 사람 힘이 세고 성질이 무서워서 주변이 가만히 있다. 그것 때문에 커뮤니티가 망가진다. 비윤리적인 사람이 잘 나가면 저항을 못 한다. 저항을 하면 죽임을 당하니, 그저 우울하다.

여러분들이 물어 본 질문, 어떻게 살아야 할까? 우리는 사는 방법이 세가지다. 사는 것, 은둔 또는 우울, 자살이다. 이렇게 살기가 힘들다. 죽지 못 해서 사는 상태, 사회적 죽음을 선택하는 것(은둔). 한국은 자살과 스트레스 사가 압도적인 1위다. 쌍용 자동차에서 돌아가신 분이 33분, 그분들 중 자살자는 12명이다. 이 죽음을 뭐라고 해야 할지. 사고사도 아니고 자연사도 아니고. 인문학과 치유학을 같이하는 분들이 잘 나간다. 확 얻어지면 원하는 것과 바라는 게 없는 상태가 되면서 엉뚱한 운동성이 발동하는 캐릭터도 나타난다. 어차피 내일 죽을 건데 오늘 뭐라도 하자! 이런 캐릭터 들이 나타나기도 하죠. 그래서 내가 고소를 많이 당해도 아무렇지도 않다. 어차피 죽을 꺼 열사가 되고 말리라! 같은.

두 가지만 정리 하겠다. 집에 가서 생각해 보시고..

1.우울은 정상이다. 이것은 윤리적 인간이라는 증거다.

우리 사회가 건강하면 소통이 가능하다. 사회가 건강하지 않으면 타자화 시킨다. 우리는 사회를 건강하게 해야 하는 데 국가를 건강하게 하려 한다. 지배 세력은 국가를 강하게 하는 반면 건강한 사람은 사회를 강하게 한다. 어쨌든 우울은 정상이다. 그 다음에

2.약자가 되어라. 선한 자, 정의로운 자 보다 약자가 되자. 약자가 돼서 막 아프라는 이야기가 아니다. 사회를 변화시키기보다 약자를 가시화 하자. 강남역 포스트잇 1004개가 출판됐다. 인쇄전액은 공공도서관에 책으로 기부가 된다. 그 책을 남자들은 이해를 못 한다. 아들을 둔 부모나 페미니스트들은 읽

있으면 좋겠다고 썼다. 여성학 강사라는 것이 창피했는데 20~30대 여성들에게 이제 가르칠게 없다. 포스트 잇에 페미니스트 의식이 높다. 희망을 느낌과 동시에 사람들의 수준이 엄청나게 높다. 대중작가나 예술가들은 자기가 높다고 생각한다. 대중수준이 훨씬 높다. 누가 누굴 가르친단 말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이 두 가지를 곱씹으며 생각하는 주제 테마가 되었으면 좋겠다.

[질의응답]

약자들에게 마이웨이가 필요하다. 이해 하려 할 때 딜레마가 발생한다.

여성주의는 있는 그대로 현실을 보자는 거다. 예를 들면 대학동기가 시집이나 가지 학교를 가냐는 얘기에 '수녀가 되려 왔다'고 이야기했다. 그게 사실이니까. 성희롱 예방강의에서 누군가 이런 강연하면 남편이랑 성생활이 좋겠다고 얘기해서 엄마랑 잔다고 했다. 당신들의 경험을 믿어라. 자기 경험이 철학이고 언어화 하는 게 여성학이라고 생각한다.

질문: 약자가 되라는 의미가 피해자와 같은 건지, 남성을 잠재적 가해자라고 하면 거부하고 반대하는데 여성을 잠재적 피해자라고 하는가.

질문: 나는 대안학교 교사이다. 성교육도 하고 함께 있는 사람들이 진보적인 척 재수없는 남자들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강남역 사건이나 성희롱 사건을 얘기를 하려 하면 함구가 된다. 말을 안 한다. 무서워서 라던지, 더러워서 일수도 있고, 잘못 말했다가 잡힐 수도 있는데 이야기가 되고 회자가 되어 뭔가 올바름이 찾아가지는데 안 되는 현상이 답답하다.

정희진: 페미니즘도 여러 가지가 있다. 페미니즘즈 이다. 모성을 반대하거나, 찾아가는 것 등. 저는 메타 젠더 페미니즘 이다. 사회적, 양성적 등 많다. 여러분이 젠더 때문에 느끼는 억압이 각자 다르다. 패턴화하면 근대적 페미니즘, 양성평등은 젠더스 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젠더를 남녀만으로 생각하니 잠재적 가해자, 피해자가 된다. 젠더 문제를 가시화 하기 위해 남성과 여성, 강간, 구타문화를 거론하기 시작했다. 권력관계를 가시화하기 위해서 있었지만 남자도 내부의 차이(계급 차, 인종 차)가 많다. 남성을, 여성을 일반화 하는 거다.

여성이 겪는 것, 여성 안에서도 층위가 다르고 남성도 마찬가지. 이 모든 것들이 페미니즘 안에 있다. 저 말보다 나는 가부장적 사회에서 가해자의 위치에 있습니다, 나는 피해자의 위치에 있습니다. 라고 표현하고 싶다. 저는 서울중심주의에서 혜택을 보는 사람이다. 이성의 제도하에서 제가 레즈비언은 아

니지만 혜택을 보거나 안전한 위치에 있다. 장애도 마찬가지다. 비장애인 중심인 사회에서 혜택을 보고 있다.

하지만 남성들은 그런 식의 성찰이 부족하다. 저는 이런 환경이 아니었으면 여기에 없었을 꺼다. 부모님이 석, 박사여서 제가 영향을 받고 개인적 노력 이상의 이득을 본 것이다.

백인중심사회에서는 백인들이 혜택을 보고 나쁜 사람들이 된다. 한국 남자들이 미국과 일본의 피해자인 것 맞다. 여자에게 피해 받은 게 아닌데 위치성을 잘 잡지 못한다. 위치에 따라 혜택과 피해를 보는 유동적인 원만한 상황이다. 여기서 남성중심사회에 있다는 생각을 못한다. 한국사회 남녀격차는 OECD 최하위다. 남자할당제도 있다. 잠시 숨을 고르고 절대로 남성들을 봐주면 안 된다. 국제회의 가면 다들 한국을 몹서리친다. 나는 젠더 문제만 빼고는 객관적지표를 보면 주류다. 저의 책을 읽고 독후감을 메일로 주시는 분들이 많다. 그 중 감동적인 게 어떤 상황이 되도 을의 위를 포기 안 하시는 분이란 말이였다. 이럴 때 남성들의 위치에서 가장 좋은 건 다른 사람이 목소리를 낼 수 있게 침묵하는 것이다.

선생님의 질문에 답하면 남성성 중 하나가 회피, 말이 없는 거다. 성찰적 침묵이 아니라 아는 게 없어서 말이 없다. 강남역 사건에 견해를 갖고 있거나 연대를 갖지 못하고 언어가 없는 거다. 편히 살고 싶은 거다. 이 문제에 대한 논쟁을 회피하고 성찰적으로 알지만 유보하는 것. 책임지지 않겠다는 것이고 말하는 사람이 책임지게 되는 경우가 발생.

스스로 괴로워. 근데 괴로움과 사유가 연결이 되어야 한다. 사유가 안되면 말하기 어렵다. 오랜 시간이 걸리거나 답답한 상황이 있다.

친구로써, 남편으로써는 수다스런 사람이 좋은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다. 지면에서의 말은 남자들이 다 독점 하고 있다. 그러나 평소 일상 언어가 남성은 적다. 나는 말없는 남자는 답답해서 싫다. 그런 남자도 나를 싫어하겠지만. 이 말과 젠더는 굉장히 재미있는 주제다. 답변이 잘 안 됐죠?

‘약자가 되어라.’ 라는 말은 피해자가 되라는 말이 아니다. 이것도 굉장히 성 역할 인데. 피해자 이고 눈물을 흘릴 때만 여성은 동정을 받는다. 근데 피해자가 당당하다, 이러면 거꾸로 된다. 여성들이 약하게 보일 때 수용하고 있기 때문에 피해자성을 스스로 선택하기도 한다. 울고, 약하고, 의존적이고, 기대는 모습을 사회가 요구하기 때문에. 당당하고 권리를 주장하는 모습을 원하지 않는다. 여성들이 권리를 주장한다 라는 것이 굉장히 부정적으로 비춰지는 거다. 나는 이 페미니즘이 한국 사회에 제대로

번역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말이 번역 되어야 한다가 보다는 한국 사회의 맥락에 맞게 페미니즘에 발전 되어야 한다. 전달이 됐나? 그런 의미에서 한자 문화의 굉장히 겸손한 척 하는 문화는 사실 여성에게 굉장히 안 맞는. 권리 주장은 남자들의 문화인 군자문화 에서도 하지 않는다. 이런 문화적인 맥락이 있다. 어쨌든 내 강의는 여기서 마친다.